장르 뛰어넘어 관객에 더 가까이 '광주상설공연'

광주시립예술관, 문예회관서
시립발레단·합창단 등 참여
5월부터 목요상설공연 신설
"국악·발레·창극·합창 등
월 2회 수준 높은 무대 마련"

지난해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광주국악상설공연의 한 장면. 광주시립예술단 제공

광주시립예술단이 더 다양해진 볼거리로 구성된 '광주상설공연'을 꾸며 우리 곁을 찾는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진행 중인 '광주국악상설공연'을 '광주상설공연'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상설공연'은 기존의 '국악상설공연'을 유지하면서 타 장르 시립예술단이 참여하는 '목요상설공연'까지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4월 준비를 거쳐 5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2019년 첫발을 뗀 '광주국악상설공연은' 광주공연마루에서 '국악'을 주제로 출연단체별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여 왔다.

올해는 광주를 찾는 관람객들이 다양한 현대 장르를 포함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립예술단체와 민간예술단체가 '광주상설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상설공연'은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목요상설공연'과 '국악상설공연'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목요상설공연'은 매주 목요일 교향악단·발레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4개 시립예술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현대 장르 공연을 선보인다.

'국악상설공연'은 매주 금~일요일 국악관현악단·창극단 2개 시립예술단체와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예술단체가 참여한다.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광주시 소재 민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3 광주국악상설공연 작품 공모'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에는 매주 수~일요일 4개 시립예술단체(발레단·합창단·국악관현악단·창극단) 및 민간예술단체가 선보이는 다채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4월 첫 공연은 1일 시립창극단이 '사시장춘(四時長春)'을 주제로 꾸민다. 판소리 '수궁가'를 각색한 '토끼 이야기',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창작무용 '초무', 단막창극 '어사상봉' 등을 감상할 수 있다.

20일에는 시립발레단이 '해설이 있는 발레-돈키호테'를 공연한다. 희극발레의 대명사 '돈키호테'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해설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27일에는 시립합창단이 '행복한 하모니'를 주제로 봄가곡 독창과 우리민요 합창 등을 공연한다.

21일에는 국악창작그룹 '뮤르'가 기획공연 '달달콘서트'를 펼친다. 뮤르는 KBS 2TV '불후의 명곡'을 통해 이름을 알리며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룹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은 곡들로 구성했으며, 국악 관악기에 재즈를 접목한 '가리봉블루스', '정선아리랑', '서울의 달'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 4월 한 달간 11개 민간예술단체가 새로운 레퍼토리의 판소리·사물놀이·단막창극 등 다채로운 국악공연을 선사한다.

5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교향악단·발레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4개 시립예술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현대장르 공연을 선보이는 '목요상설공연'이 본격 운영된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광주상설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월 1~2회 수준 높은 공연팀을 초청하여 특색 있는 기획공연과 특별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광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4월 한달 간 매주 수~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리며, 모든 좌석은 무료다. 자세한 일정과 예매는 티켓링크,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13-8379)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손 끝에서 피어난 나무의 생명력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27일까지 '나무가 되다'展
노은희 작가 90여점 선봬

노은희 작가의 재봉질로 섬유에 나무를 표현한 작품과 한지 액자 작품.

'재봉질로 재탄생한 나무.'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오는 27일까지 나주 다시면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노은희 작가 특별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초대작가 조선대 미술대학 노은희 명예교수는 이번 전시회에서 '나무가 되다'를 주제로 한 9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모두 한지, 대나무, 삼나무, 폐기섬유, 실, 커피 필터 등을 소재로 나무로 재탄생한 작품들이다.

노 작가는 나무가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동화 작용을 하듯, 나뭇가지와 한지와 같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섬유 등에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작품은 바느질, 뜨개질, 붙이기, 겹치기, 줌치기법, 주름주기, 재봉질 등 다양한 기법과 색상이 조화를 이룬다.

관람객들은 편안함, 긴장감, 생명감, 예술적 환희 등 다양한 감정을 작품 속에서 느껴볼 수 있다.

노은희 조선대 미술대학 명예교수는 "나무는 땅의 물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에너지를 만들어 생명을 영위하면서 산소를 내뿜고 성장하는 것으로 자연과 생명을 상징하는 존재다"며 작품 속 의미를 부여했다.

임경렬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장은 "이번 작품전은 예술로 약동하는 봄기운을 느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은희 작가는 홍익대 미술비평전공 미술학 박사학위 취득, 조선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초대디자이너, 한국미술대전 초대작가, 광주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 중이다.

나주=박송엽 기자

담양의 봄 듣는 '앙코르 해동'

25일 해동문화예술촌 첫 무대

담양에서 봄의 선율에 몸을 맡겨 보자.

(재)담양군문화재단 해동문화예술촌이 2023년 '앙코르 해동' 공연을 시작한다. '앙코르 해동'은 3월 시작으로 6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 '앙코르 해동'의 상반기 프로그램은 대중음악, 탱고, 연극, 창극 등 지역의 특색을 접목한 다양한 장르로 구성했으며 무료다.

첫 번째 무대인 '홍순관의 쌀 한 톨과 노래 한줌'은 대중음악 공연이다.

오는 25일 오후 4시 해동문화예술촌 마당에서 열리며 가수 홍순관, 해금 연주자 홍다솔, 시인이자 화가인 임의진이 함께 무대에 선다.

담양군문화재단 관계자는 "사라져가는 한국 감성의 멜로디를 담양에서 만나길 바란다"며 "담양이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동문화예술촌 소셜미디어와 (재)담양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가 지난 17일 시청 문화도시정책관 회의실에서 '미술도시광주' 선언을 위한 민관학협치회의를 열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소리꾼 장사익의 찔레꽃 감상해볼까?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
젊음으로 재구성 '무취타' 등

전통음악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 광주에서 선보인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 남구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2023년 첫 공연을 갖는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최원록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빠르고 힘찬 선율의 관현악 합주곡 '춤추는 바다'가 시작을 알린다.

이어 피리 이종대 명인이 함께하는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협주곡'을 비롯,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장사익(사진)의 히트곡인 '찔레꽃', '꽃구경', '꿈꾸는 세상' 등이 펼쳐진다.

또 젊은 국안인들의 모임인 우리소리 바라지와 함께 타악 협주곡 '무취타'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티켓 가격은 R석 2만원, A석 1만원이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미술도시광주' 위해 민·관·학이 힘 모았다

광주비엔날레·미협·민미협 등
미술도시 정책비전 창출 노력

'미술도시광주'를 위해 민·관·학이 힘을 모았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광주시청 문화도시정책관 회의실에서 '미술도시광주 선언 및 상생협약식'을 위한 민관학협치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을 비롯해 시립미술관, 광주미협, 광주민미협, 광주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 광주박물관미술관협회, 건강한 미술생태를 위한 화랑모임, 전남대, 조선대 등 미술관련 기관의 대표 등 1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의는 광주가 문화, 그 중에서도 미술이 중심이 된 대표적인 도시인 만큼 미술도시로서의 명실상부한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온 데 따른 민관학협치 체계구축으로 '미술도시광주 선언'에 뜻을 모으게 된 것이다.

'미술도시광주 선언 및 상생협약식'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시립미술관 1층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향후 상생협약 기관들과의 정례적인 회의를 거쳐 미술도시광주의 정책비전 창출과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